

# 大巡宗旨의 文明史的 意義

李 恒 寧 \*

## 目 次

- |                    |                     |
|--------------------|---------------------|
| I. 머리말 - 第1의 길을 찾자 | III. 大巡宗旨의 傳統性과 世界性 |
| II. 大巡宗旨의 文明史的 意義  | IV. 맺는말             |

## I. 머리말 - 第1의 길을 찾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에서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가 패배한 후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적 제패(制覇)를 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미국식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허점이 노출되어감에 따라 서구사회에서는 제3의 길이라고 하여 중도좌파(中道左派)가 대두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우익(右翼) 제1의 길로 보고 공산주의를 좌익(左翼) 제2의 길로 보는데 대해서 좌우익을 초월하는 중도적 입장을 제3의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1945년 8·15 해방후에 우리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쪽은 미군의 점령하에서 우익인 자본주의 체제가 터를 잡았고 북쪽은 소련의 점령하에서 좌익인 공산주의 체제가 터를 잡아 남북이 좌우익으로 갈라졌다. 그때 남쪽에는 좌우익 어느편에도 기울이지 않고 좌우익의 장점을 따서 이른바 중간노선(中間路線)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간노선은 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뒤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서

---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구세계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이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간노선이라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든다. 다만 우리나라의 중간노선이라는 것은 좌우익에서 중립적인 것임에 대하여 요즘의 서구의 제3의 길은 좌익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영국의 노동당(勞動黨)은 본시 사회주의 정당이다. 그 노동당의 「블레어」가 1998년에 집권하면서 「앤스니 기든스(Anthony Giddens)」교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하여 「제3의 길(the thrid way)」을 제창한 것을 받아들였으며 또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의 「슈뢰더」가 집권하였는데 유산층(부르조아)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와 빈민층(프로레타리아)을 옹호하는 사회주의도 아닌 중산층(인테리)을 옹호하는 제3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 제3의 길이란 일종의 사회주의임에 틀림없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간노선이 오래가지 못한 것은 그때 남북한은 물론이요 전세계적으로 좌우익으로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어 그 중간노선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간노선이 오래가지 못한 것은 국내외적 정치적 배경도 있었지만 중간노선의 사상이라는 것이 그 뿌리가 허약한데서 기인한 점도 있다.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뿌리는 깊다. 개인의 자유를 정의(正義)로 삼았던 서구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개인의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그것이 경제적 체제를 이룬 것이 자본주의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뿌리를 서구사회의 역사만큼 길다. 한편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격차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할 도리가 없어 그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사상이 발생하였는데 그전 의미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의 그림자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생과 같이 생겼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워낙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오랜 전통 때문에 좀처럼 사회주의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서구사회보다 일찍부터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이름으로 전제정치(專制政治)가 발달된 동구사회인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였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러시아제국의 터전에서 가능하였다. 러시아제국은 러

시아 정교(正敎)를 국교로 하고 종교와 정치가 황제에게 귀일된 제정일치적(祭政一致的) 사회였는데 공산당통치도 공산당이라는 유일정당의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통치한 점에 있어서 러시아정교와 러시아 제국과 비슷한 체제를 이루었었다. 그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평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인류의 정의감이 살아지지 않는한 사회주의는 비록 그 형태를 바꾼다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영구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제3의 길이란 이름으로 사회주의는 새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1의 길인 자본주의와 제2의 길인 사회주의의 뿌리는 꽤 오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간노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 놓은 것같아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곧 시들을 운명에 있었다. 오늘의 자본주의 문명과 사회주의 문명은 오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토양에서 피어난 꽃이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꽃은 오래살 수 없다. 꽃이 오래 가려면 토양 깊이 뿌리가 뻗어야 할것인데 중간노선은 그 뿌리가 없었다. 남한이나 북한은 본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풍토다. 오랫동안 농경(農耕)생활을 하다가 일제(日帝)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자본주의도 제대로 겪지 못하고 사회주의 사상도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일제에 반항하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던 남북한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생소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는 미국식 자본주의요 사회주의는 소련식 사회주의가 되어 남북한에서는 우리의 민족적 전통과는 관계없었던 것인데 남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고집하게 된 것은 뿌리없는 화병문화(花瓶文化)에 불과한 것이요 더군다나 그 중간노선이라는 것은 더욱 뿌리 없는 허구적 망상에 불과하였다.

1997년이래 우리가 아이·엠·에프(IMF)체제로 들어서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노선의 강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 서구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반발하듯이 제3의 길이 성행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제 그 풍토에 맞는 제1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서구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자본주의가 제1의 길이고 사회주의가 제2의 길이고 중도파가 제3의 길이 되겠지만 이러한 의미의 제1, 제2, 제3의 길보다 본래 아시아에 뿌리를 박은 제1의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 제1의 길

이란 바로 동방의 도덕적 민본주의(道德的 民本主義)이다.

세계를 서구중심으로 보고 서구화 되는 것이 문명이 진보라는 것에 지금까지의 시각이었다. 지구는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화는 동아(東亞)와 서구(西歐)와 중동(中東)의 3원성을 띠고 있다. 문명의 모태는 풍토(風土)이다. 계절풍(季節風)적 풍토인 동아에는 자연주의적 가족주의적 농경문화(自然主義的 家族主義的 農耕文化)가 발달되었고 해양성(海洋性)적 풍토인 서구에는 인간주의적 개인주의적 상업문화(人間主義的 個人主義的 商業文化)가 발달되었고 사막(沙漠)적 풍토인 중동에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유목문화(社會主義的 集團主義的 遊牧文化)가 발달되어 그것이 문화의 원형(原型)을 이루게 되었다.

동아의 농경문화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가족주의를 발단시키고 그 가족의 유대를 자연법(自然法) 즉 도덕으로 확보하여 협동적 덕치주의(協同的 德治主義)를 이루어 우리나라에서는 홍익(弘益)사상으로 결집되었다. 서구의 상업문화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개인의 자유활동을 실정법(實定法)으로 확보하여 민주적 법치주의(民主的 法治主義)를 이루어 미국의 사회에서 결실을 보고 있다. 또 중동의 유목문화는 부족전체의 단결을 제정일치(祭政一致)적인 종교적 신앙으로 확보하여 전제적 권위주의(專制的 權威主義)를 형성하여 내려왔다. 중동 더 나아가서 동아와 서구의 중간지대인 서아(西亞)와 동구(東歐)의 중방(中方)지대에서는 사라센 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터어키 제국, 러시아 제국, 소비엘 제국등이 흥망하였다. 서구나 중동이 나 동아는 풍토에 맞는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 흥하였으며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쇠망하였다.

모든 문화는 그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 장점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흡수할 때 흥하게 되지만 단점을 노출시키고 다른 문화를 배격하게 되면 망하였다. 제2차대전후에 전패국인 일본과 식민지였던 한국·대만·홍콩·싱가폴이 흥한 것은 그 장점을 잘 발휘한 때문이요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아이·엠·에프 난국은 한국이 그 장점을 상실하고 서구의 결점에 물들어 비도덕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자유가 서구의 가치이고 집단주의적 평등이 중동의 가치라면

가족주의적 평화는 동아의 가치이다. 개인주의적 시장(市場)생활에는 자유가 중심이요 집단 주의적 유목(遊牧)생활에는 통제가 중심이지만 가족주의적 농경생활에 협동이 중심이다. 서구사람들은 동아의 가족주의를 집단주의로 보지만 동아의 가족은 결코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 그 자체보다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의 연대성(連帶性)을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을 무시하고 가족이라는 전체집단만을 인정하는 집단주의는 아니다. 가족 관계는 개인과 집단을 다같이 살리는 협동체로서 그 협동체의 평화적 유지를 통하여 모든 개인이 다 함께 살수 있는 생활형태이다.

상업생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유목생활은 어디까지나 집단적 이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농경생활은 개인의 힘으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통제된 집단의 힘으로도 안되며 오직 잘 협동된 개인과 개인의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협동은 통제와 다르다. 통제는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이지만 협동은 자발적(自發的)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연(自然)의 계절(季節)을 중요시하여 일정한 계절에서만 씨뿌릴 수 있고 일정한 계절에서만 거둘수 있는 농경생활에서는 그 계절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제적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동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주의가 발달한 것이다. 가족이란 어느 단체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夫婦)와 친자(親子)와 형제(兄弟)가 서로 평화스럽게 같이 어울려 사는 관계적 형태(關係的 形態)이다. 그러한 평화적 협동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자연적 도덕이다. 동아의도덕적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과의 자연적 유대(紐帶) 즉 인륜(人倫)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다. 인륜의 평화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전체의 평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평등을 다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인륜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윤리(倫理)도덕(道德)이다.

윤리와 도덕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생

각하여야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웃사람은 언제든지 옆의 사람을 생각하여야 한다. 인의예지(仁義禮智)나 효제충신(孝悌忠信)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군고기(檀君古記)에 하늘(桓天)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하늘나라(桓國)에서 하늘아래(天下) 즉 지구에 가고자 하였고 그 아들의 뜻을 알아챈 아버지(父知子意)가 그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이 바로 부자지간의 평화공존관계요 거기에 효(孝)가 있고 거기에 인자(仁慈)가 있다.

이러한 평화적 가족관계가 사회적 질서의 기본을 이룬 것이 바로 동양의 덕치(德治)주의요 덕치주의는 바로 인륜(人倫)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인본(人本)사상이다.

이러한 가족적 덕치주의는 서구의 개인적 법치주의나 중동의 집단적 권위주의와는 달리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가치로 되어 있다. 그 아시아적 가치가 잘 발휘될 때 아시아는 흥하였고 그 가치가 쇠퇴될 때 아시아는 쇠퇴하였다. 제2차대전후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그 아시아적 가치인 협동관계가 잘 발휘되었기 때문이요 1997년 이래 몰아닥친 아이·엠·에프(I·M·F)한파는 그 아시아적 가치인 협동정신을 저버리고 서구의 잘못된 개인주의 즉 무절제한 이기주의 사상에 오염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아시아가 살 수 있는 길은 서구의 가치인 개인주의 또는 그 잘못된 형태인 이기주의나 제3의 길인 수정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시아의 제1의 길인 협동적인 인륜 도덕을 다시 발휘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전통적 동양사상 또는 전통적 한국사상을 되찾고 거기에 근거하여 일그러진 전통은 바로잡고 그 토대위에 옳은 외래사상을 잘 흡수하여 새로운 제1의 길을 건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대개 전통이라는 것은 종교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한국적 전통은 한국민족 종교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한국 민족 종교의 하나인 대순진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 II. 대순종지의 문명사적 의의

대순진리회는 대순진리(大巡眞理)를 종지로 하는 종교인데 대순진리를 풀이하면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 된다. 그 하나하나에 관해서 이미 소견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어느 종교든지 그 교리(敎理)를 가지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를 모시고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종지로 하고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사강령(四綱領)과 성(誠) 경(敬) 신(信)의 삼요체(三要諦)를 신조로 하며 무자기(無自欺)의 정신개벽(精神開關)을 통하여 인간개조(人間改造)로서 지상신선(地上神仙)을 실현하고 세계개벽(世界開關)으로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대순이라는 말은 전경 교운 1장 9절에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 불(佛) 보살(菩薩)들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九天)에 호소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天下)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母岳山 金山寺 三層殿 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에 유래한다.

대순(大巡)이라는 말은 위대한 순회(巡廻) 또는 위대한 순환(循環)이라는 뜻이다. 순회는 각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요 순환은 쉬지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뜻인데 순회는 주로 공간적으로 각처를 돈다는 것이요 순환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순이라고 하면 순회와 순환을 다함께 포함하여 공간적 무한성(空間的 無限性)과 시간적 무한성(時間的 無限性)속에서가 없는 공간을 영원히 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처음도 끝도 없는 무궁영원(無窮永遠)한 시간과 앞도 뒤도 없는 무한광대(無限廣大)한 공간 속에서 하나의 진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곧 대순진리다.

그러면 무한한 공간과 무궁한 시간을 무엇이 대순한다는 말인가? 전경 교운 1장 9절에는 바로 강성상제 자신이 대순하였다고 하였다. 강성상제께서는 구천에 계셨는데 원시의 모든 신성 불 보살들이 회집하여 인류의 겁액을 하소연하여 대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서양에서 대순하다가 동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대순의 공간성이 동서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의 공간성은 구천·서양·동토의 무한한 전우주 공간에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구천에서 대순하다가 지구에 하강하여 서양에서 대순하고 동양으로 옮겨 금산사 미륵불에서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계시를 내리고 갑자년에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직접 강세하여 39년 대순하다가 기유(己酉)년에 다시 구천으로 환원하여 지금까지 대순하고 또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대순할 것이다.

이 무한한 공간과 무궁한 시간속에서 대순하는 상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화(造化)다. 시간과 공간은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무대다.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간없는 조화가 없고 시간없는 조화가 없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조건일 따름이지 실체는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가 작용하는 무대일 뿐이다. 그 실체가 조화이다.

우주라는 것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넓으며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되어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주는 천억정도의 은하계(銀河系)가 모여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은하계는 태양계(太陽系) 같은 것이 천억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은하계의 크기만해도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빛이 가는데 6만년이 걸린다고 하니 우주전체의 크기는 거의 무한한 것과 같다. 또 우주의 연령은 150억년에서 200억년 가까이 된다고 하니 거의 무궁한 것과 같다. 이 무궁한 시간과 공간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는게 그 조화의 본체에 대해서는 철학적(哲學的)으로는 신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관념론적(觀念論的)인 사고방식과 물질 자체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유물론적(唯物論的)인 사고방식이 있다. 과학적(科學的)으로는 태초에 에너지(energy)가 대폭발(Big Bang)을 일으켜 팽창해 나가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하고 우주의 팽창(膨脹)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그 팽창이 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축(收縮)이 시작해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성과 소멸이 윤회(輪廻)한다고 보고 있다.

과학자의 우주관은 우주의 본체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종교에서는 신으로 보고 유물론자는 물질로 보고 있는데 에너지라는 것을 물리적(物理的)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면 과학자의 견해는 유물론과 비슷하다.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우주의 본체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인데 그 구천상제는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玉皇上帝)와 같으며 그 옥황상제는 한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왔다.

구천상제 또는 옥황상제 또는 하느님은 우니나라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하늘나라(桓國)의 주재자인 하느님(桓因)으로 표현되었고 또 기독교가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기독교의 우주 주재신(宇宙主宰神)을 천주(天主)로 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동학을 창시한 최수운(崔水雲)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천주(侍天主)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천주의 본체는 지기(至氣)라고 하여 그 지기가 하강하여 인간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기가 지금 크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모시게 되고 그 하느님의 조화로 세상만사가 잘 이루어지소서」하고 기원했다.(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이는 우주의 본질은 기(氣)요 그가 신(神)도 되고 물질도 된다는 유기론(唯氣論)으로 서양의 관념론(觀念論)이니 유물론(唯物論)과는 다른 사고 방식이다.

강증산은 최수운의 동학사상을 존중하여 수운이 만든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주문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증산사상이 수운사상에 바탕을 준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것은 기로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으면 세상만사 돌아가는 것을 다 알수 있다는 뜻이다. 전경에도 처음에 세상을 주권하기 위하여 최수운에게 재세의 사명을 주었다고 한 것을 보아도 증산사상과 수운사상의 긴밀한 관계를 알수 있다.

그런데 전경에는 수운이 유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수운에게 준 사명을 거두고 증산자신이 직접 하강하였다고 하였다. 이 부분을 가지고 증산계통의 신자와 동학계통의 신자 사이에 일종의 갈등이 있다. 증산계통에서는 수운보다 증산이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동학계통에서는 증산이 수운을 무시한 망발이라고 한다. 그러나 증산이 결코 수운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수운의 사상을 한결음 더 발전시킨 것뿐이다. 수운이 유교의 전헌을 넘지 못한 것을 바로 잡은 것 뿐이다.

수운은 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유교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왕조 말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유교가 지배계급의 이념화된 것에 대해 만인평등의 개혁(開闢)사상을 제창했는데 그는 그것을 한국 고유신앙인 신선도(神仙道)에서 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신라의 선가(仙家) 최고운(崔孤雲)의 후예로서 최고운이 우리나라의 고유신앙이라고 생각했던 풍류도(風流道)를 다시 되찾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고유신앙이라면 단군고기에 나타나 있는 환인 환웅 단군의 삼신신앙(三神信仰)인데 삼신신앙은 환인의 환국(桓國) 즉 하늘나라와 환웅의 신선나라(神市)와 단군의 조선나라(朝鮮國)가 일체를 이루는 삼계일체(三界一體) 신앙으로서 신선사상이 중추를 이룬다. 신선이란 개념은 중국의 선도에서 많이 논의되어 한국의 신선사상도 중국의 신선사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신선사상의 발생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 것 같다. 신선이라는 하늘나라에 사는 신령(神靈)이나 귀신(鬼神)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 불노불사하는 순전히 정신적 존재가 아니다. 또 신선은 지구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현실적 인간도 아니다. 신선은 신도 인간도 아니면서 신과 인간을 겸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노장생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러한 신선사상은 오래 살기가 좋은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사상이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현실을 빨리 떠나 천국에 가고자 할 뿐이요 신선으로서 이 지구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다. 중국 문화의 발생지는 황하(黃河) 유역인데 황하유역이 그다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 백두산(白頭山)과 같은 좋은 환경에 살고 그곳에서 오래 살겠다고 하는 염원이 신선사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으로 신선사상은 본래 한

국에서 발생되고 그것이 중국으로 전파되어 도교라는 것으로 체계화되어 한국에 역수입된 것이 이른바 선도(仙道)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나라에 고유한 신선사상을 중국의 선도와 구별하여 국선도(國仙道)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국선도를 최고운이 우리나라에 고유한 깊고 아름다운 사상(固有 玄妙之道)라고 하고 그것을 풍류도라고 한 것 같다.

이 풍류도가 신선사상인 것은 고운이 그 풍류도의 자세한 내용이 선사(仙史) 즉 신선의 역사라는 책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備詳仙史)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신성사상의 원류는 바로 단군 고기에 나와있는데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신선나라를 건설하였고 환웅의 아들인 단군이 조선나라를 건설한 뒤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신이 바로 신선이다.

수운이 유교적 지배이념 대신이 펴고자 한 것이 바로 신선사상인데 그가 공부한 것이 유교의 바탕이어서 신선사상을 펴는데에도 얼핏 유교적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증산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이 유교적 지배계급보다 서민이나 하층계급의 무속(巫俗)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점에서 수운과 다르다. 그러므로 증산의 입장에서 보면 수운은 유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운이 지기(至氣)를 우주 조화의 근본으로 본 점은 그가 선도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증산은 수운의 선도사상을 더한층 심화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선도사상은 이미 그 자체가 유교나 불교나 중국의 도교사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이미 최고운이 지적한 바가 있다. 최수운은 자기의 깨달은 도가 유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도교도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도가 유불선 어느 하나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불선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운의 동학사상을 더 한층 심화시킨 것이 증산사상인데 증산의 사상은 다시 그 제자들에 의하여 여러 방면으로 발전되었다. 그 사상의 발전 계통을 대별하면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증산으로부터 생전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부터의 발전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전에 증산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나 증산의 계시를 받고 그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보천교(普天敎)는 전자의 예이고 대순진리회는 후자의 예이다.

보천교는 증산을 생전 모시고 있던 차경석(車京石)이 세운 것이요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계시를 받은 조철제(趙哲濟)가 세운 태극도(太極道)를 조철제의 제자인 박한경(朴漢慶)이 다시 발전시킨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예수의 직접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의 직접제자는 아니되 예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기독교를 다같이 발전시킨 것처럼 증산사상도 증산의 직접제자였던 차경석, 김형렬(金亨烈), 고판례(高判禮)등에 의하여 발전된 동시에 증산 화천후에 그의 계시를 받은 조철재등에 의하여 발전을 보았다.

예수의 가르침이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전하여지고 또 생전 직접 가르침을 못받았지만 그로부터 영적인 계시를 받은 제자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증산의 가르침도 두가지 형태로 전해졌다.

대순진리는 조철제가 계시를 받아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본체(本體)를 대순(大巡)이라는 작용(作用)사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 집착하여 사물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過去)로부터 현재(現在)로 이어지고 또 미래(未來)에까지 이어나가는 영원무궁토록 대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연관되고 더 넓은 사회와 관계가 있으며 나라와도 관련되고 세계와도 이어지며 나아가 우주전체와도 하나가 되어 있는 광대무변히 대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합해서 일체를 이루면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며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어 인계(人界) 지계(地界) 천계(天界)가 일체를 이루고 인간의 육체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천지우주에 가득찬 신명 영혼등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면서 산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연대속에서 대순하는 것이 천지 우주요 지상세계요 인간세계요 영혼세계요 귀신세계요 신명세계이다. 이러한 대순세계에서 대순진리를 깨닫고 대순진리에 따라 살면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그러 눈앞만 내다보고 대순세계가 있는 줄을 모르고 대순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 나가면 참다운 삶을 살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참가치도 사는 보람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환희도 맛볼수 없게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가 대순사상을 표방하고 대순진리를 밝힌 것은 지금까지의 철학이나 종교가 벽에 부딪혀서 갈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인류가 사고(思考)를 시작한 이래 동서고금을 통하여 실로 많은 사상이 나와서 인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훌륭한 가르침도 시대가 변하여 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별 효능을 내지못하게 되면 이에 새로운 사랑이 등장하여 또 시대를 이끌었다. 인류는 처음에는 자기주의의 사람들만을 의식하여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상과 도덕과 관습을 마련하였지마는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집으로부터 이웃으로, 이웃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인류로, 인류에서 세계로 생활영역이 확대하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사상과 도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제 인류는 세계에서 우주로 그 생활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또 인류는 너무 현재에 집착하여 과거를 돌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또 인류는 너무 육체에만 집착하여 정신이나 영혼이나 신명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가 우주시대에 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물질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신명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기에 우주시대에 적응하는 대순사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문명사적 필요성(文明史的 必要性)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의 슈팽글러(Spangler, 1880~1936)는 「서양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1918)을 내어 새시대를 예견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영국의 토인비(Arnold Toynbee, 1889~1975)는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 1934~1961)를 내어 새시대를 예견했고 제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이 끝난후 미국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을 내어 새시대를 비관적으로 예견했으나 그보다 앞서 1969년에 대순진리회가 「대순사상」(The thought of Great

Round Circulation)을 선포함으로써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조화」(The Hamony of Civilizations)을 역설함으로써 새시대의 인류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지게 하는 문명사 전환(文明史 轉換)을 선언하였다.

슈팽글러는 세계사가 고대(古代) 그리스·로마(Greece-Rome)의 아폴론적(apollonish) 시대로부터 중세(中世) 아라비아(Arabia)의 마고스적(magish) 시대를 거쳐 근대(近代) 서구의 파우스트적(Faustish)시대를 지나 서양은 몰락한다고 하였고 토인비는 바비로니아 문명, 이집트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근동아라비아 문명, 서구 문명, 중미마야 문명, 남미페루 문명, 러시아 문명, 극동한일 문명 등 9개의 문명의 발생(發生) 성장(成長) 쇠퇴(衰退) 해체(解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문명과 특히 한국문명을 중요시 했다. 그런데 헌팅턴은 현대문명을 서구문명, 유교문명, 불교문명, 일본문명, 회교문명, 힌두문명, 슬라브문명 남미문명 아프리카문명의 9개로 보고 문명이 다르면 충돌하게 되며 앞으로는 중동의 이슬람문명과 중국의 유교문명이 합심하여 서양문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대순사상은 문명이 다르다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다르면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 우주 대순의 원리에 따라 앞으로는 문명이 통일되고 인류와 우주만물이 상생(相生)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순사상을 평가하는 것은 21세기의 평화를 약속하고 인류와 우주의 무궁을 확신케하므로 자칫하면 비관적으로 흐를 작금의 인류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희망을 주는 문명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 Ⅲ. 대순 종지의 진통성과 세계성

대순종지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로 신인조화(神人調化)되어 해원상생(解冤相生)을 통하여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는 것이다. 우주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과 공간속에서 조화(造化)가 이루어진다. 조화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조화의 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관(時間觀)도 달라지고 공간관(空間觀)도 달라지면 우주관(宇宙

觀) 세계관(世界觀) 인생관(人生觀)이 달라진다.

대순종지의 음양합덕은 대순사상이 보는 조화의 원리다. 천지만물이 조화해 나가는 원리는 음양합덕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음양사상은 동양의 기(氣)사상을 모태로 하고 정신과 물질이 다같이 함축되고 음기(陰氣)와 양기(陽氣)가 서로 배척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합덕하여 천지만물의 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음양합덕의 조화원리가 시간적으로 전개되어 신과 사람이 조화(調和)스럽게 조화(造化)를 이루게 되며 이러한 시간적 전개와 더불어 공간적으로 전개되어 만물이 해원상생하게 되고 드디어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도통진경(道通眞境)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음양합덕의 원리가 시간적 전개로 신인조화를 이루고 공간적 전개로 해원상생을 이룬다.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시간적 전개과정(時間的 展開過程)을 말하고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공간적 전개과정(空間的 展開過程)을 말하고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도통진경에 이르는데 도통진경을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표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고 무궁한 천지우주에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영원한 낙원(樂園)이요 환희의 극락이요 지락(至樂)의 천당이요 무수(無愁)의 선경인 진짜로 살기좋은 곳 즉 진경을 이루게 된다.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언제 생겼는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때에는 신화(神話)나 종교(宗教)를 가지고 천지의 조화를 설명하였다. 천지 창조에 관해서는 대체로 창조주(創造主) 또는 조화옹(造化翁)이 계시어 그 창조주나 조화옹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고방식과 특별히 창조주나 조화옹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였다기 보다는 천지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무위이화(無爲而化)를 믿는 사고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창조설의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신화이다. 구약(舊約) 창세기(創世記)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여호아)가 계시어 그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되

어있다. 따라서 창조설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신론(有神論)이다. 천지에 하느님이나 신명이나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유신론인데 그 신은 천지에 가득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천지창조신은 피조물(被造物)인 우주만물과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 신과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나 만물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하필 유신론(有神論)뿐만 아니라 이 천지에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의식(意識)이나 관념(觀念)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어서 유신론을 포함해서 넓게 관념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상을 관념론(觀念論)이라고 하는데 유신론도 관념론의 일종이다. 관념론에서는 물질보다 관념이 더 기본적인 존재요 모든 것이 관념의 산물이요 물질은 다만 관념의 그림자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 방식이 있다. 그것을 무신론(無神論)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신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오직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물질 뿐이요 생각이나 의식이나 관념으로 인정하는 존재는 결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것을 유물론(唯物論)이라고 한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이미 그리스시대부터 있었다. 플라톤(Platon B.C. 427~347)은 관념론을 주장한 철학자요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B.C. 460~360)는 유물론을 주장했다. 플라톤의 관념론 사상은 서양철학의 주류로 내려왔었는데 헤겔(Hegel, 1770~1831)에 의하여 관념변증법(觀念辨證法)으로 대성되었다. 한편 유물론 사상은 마르크스(Marx, 1818~1883)에 의하여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과 유물사관(唯物史觀)으로 완성되었다.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다만 학문적으로만 치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정치로까지 번져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에는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냉전(冷戰)을 이르켰다. 관념론은 주로 서구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성하고 유물론은 러시아에 강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격인 미국과 유물론에 입각한 소련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냉전이 그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우리 한국은 남북이 38선으로 인해 갈려졌는데 남에는 미국이 진출하고 북에는 소련이 진출하여 남북이 다 본래 우리의 이념도 우리의 제도도 아닌 것에 의하여 통치되었고 6·25사변이 나서 우리 민족은 피차간에 모두 자기것이 아니고 남의 이념과 체제를 위하여 서로 싸운 비극을 치르기도 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였는데 그것으로 유물론 사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중국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어 아직도 유물론 사상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유의 조화의 근본이 관념이나 물질이며 또는 우주를 신이 창조하였으나 자연이 생긴 것이나 하는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논쟁중이다.

그런데 이 관념론이나 유물론 사상은 모두 서양에서 발달한 것이요 동양에서는 유기론(唯氣論)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조화관(造化觀)이 있다.

동양사상에 의하면 우주의 근본은 기(氣)로 이 기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조화함으로서 천지만물이 생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氣)라는 것은 본래 정신과 물질을 같이 함유하여 있는 것인데 동양인들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이 물질도 되고 정신도 되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인의 사고방식으로서 정신과 물질의 혼합적 존재인 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양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가 물질이면 물질이요 정신이면 정신이지 물질과 정신이 혼합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서양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존재를 물질이나 정신이나의 양분법(兩分法)으로 환원(還元)시켜 결국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서양사람 가운데에도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보다는 제3의 우주관을 주장한 사람이 없지 않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35~475)는 만물의 유전(流轉)을 논하고 엠펬크레토스(Empelkles, B.C. 490~439)가 운동의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 에너지와 비슷한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으며 특히 아나크시메네스(Anaximenes, B.C. 585~ )는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와 근사한 개념인 공기(空氣)라는 관념을 사용하

였고 근자에 와서 오스트 월드(Wilhelm Ostwald, 1853~1932)가 에너지에 의한 일원론적 세계관(一元論的 世界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서양 사상들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주장한 기(氣)라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일찍부터 동양에서는 우주의 본질로서 기를 주장한 사람이 많다. 원래 기라는 말은 유교(儒敎)사상에서 정신적인 리(理)에 대립되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성리학(性理學)에서는 이기(理氣)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데 그 이기중에서 근본적인 것이 이(理)냐 기(氣)냐 하여서 주리학파(主理學派)와 주기학파(主氣學派)의 대립도 있으나 유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리학파이다. 그러나 도교(道敎)나 도가(道家)에서는 기(氣)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이(理)에 대립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기(氣)자체가 정신과 물질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우주의 본질로 보고 그 기가 물질로도 정신으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원래 중국에서도 유교는 상류귀족층의 정치철학으로 발달되었지만 일반 민중사이에는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도가 사상이 많이 믿어지고 있어 이(理)보다도 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살아 농경생활이 발달된 동양에서는 자연과 친화하고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여 일찍부터 천인합일(天人合一)이나 천지인일체(天地人一體)의 사상이 발달되었는데 이와같이 천인이 합일할수 있고 천지인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과 사람과 땅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氣)라고 보았다. 이 기가 축척되면 물질적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정(精)이라 하고 그 기가 상승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신(神)이라 하였다. 이 물질인 정과 정신인 신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氣)인데 이 기의 조화로 우주만물이 정기신(精氣神)을 이룬다고 생각되었다.

이 기(氣)라는 글자는 (气)라는 글자와 (米)라는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气)는 (≈)라는 글자가 변한 것으로 (≈)는 공기가 하늘을 떠도는 형상으로 이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나타내고, (米)는 쌀을 의미하는데 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라는 글자자체가 정신과 물질을 다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기가 아직 미발달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물기(物氣)를 이루고 그것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생기(生氣)를 이루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면 심기(心氣)를 이루고 그것이 마음의 신령한 단계에 이르면 영기(靈氣)를 이루고 그것이 다시 고도로 발달되면 신기(神氣)가 된다고 본다. 물기나 생기로 있는 단계는 지상의 존재요 심기나 영기로 있는 단계는 인간적 존재요 그것이 신기로 된 단계는 이미 지상이나 인간계를 떠난 천상의 단계이다. 그러나 이 천지인 즉 우주나 지구나 인간에게 모두 하나의 공통적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기(氣)라는 것이다.

이 천지인 일체의 사상은 우리나라의 천부경(天符經)에 잘 나타나 있고 정기신(精氣神)의 사상을 삼일신고(三一神誥)에서는 성명정(性命精)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을 삼진(三眞)이라 하고 성명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심기신(心氣身)인데 그것을 삼망(三妄)이라고 한다. 성(性)은 심(心)의 착한(善) 것이요 명(命)은 기(氣)의 맑은(淸) 것이요 정(精)은 신(身)의 두터운 것(厚)이니 삼일신고에서는 신(神) 대신 성(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고의 테두리는 정기신(精氣神)과 비슷하다.

우리 한국사상의 원류는 신선도(神仙道) 또는 사상(神仙思想)인데 이것은 이미 단군설화(檀君說話)에 나타나 있다. 단군설화는 중국의 도교사상과 비슷하다는 견해가 많으나 단군설화에 나타난 신선사상은 한국이 모태가 되어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가 도교(道敎) 또는 선도(仙道)가 되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도(神道)가 된 것 같다. 신선사상이 발생하려면 먼저 환경의 경치가 수려하여 사람이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곳에서 오래 살수 있기를 바라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문명의 발상지인 황하(黃河)유역이 늘 홍수가 범람하고 황사(黃沙)가 불어 땅과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여기에 비해 백두산(白頭山)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문명은 산자수려(山紫水麗)하여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기를 바래서 신선사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역사의 원조라고 여겨지는 황제(黃帝)도 청구(靑丘)땅에 와서 자부선인(紫府仙人)으로부터 도를 받았다는 중국의 기록(진(晉)나라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라는 책에 황제(皇帝)가 동으로 청구(靑丘)에 이르러 삼황내문(三皇內文)을 자부선생(紫府先生)으로 받았다고 했다.)을 보더라도 신선사상의 발생지는 한국인 것 같고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도교 또는 선도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도교나 선도의 신선사상에서는 기(氣)를 중시하는데 우리나라의 본래의 사상을 회복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동학의 최수운도 「지기금지 원위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주문(呪文)으로 지기(至氣)라는 것을 우주의 본질로 보고 있고 그 지기가 신이 되고 하느님(天主)가 된다고 생각했다.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증산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보아 증산도 기사상을 이어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순사상의 본질은 기라고 생각되고 이점에 있어서 관념론이나 유물론과 구별되는 유기론(唯氣論)의 입장에 서는 전통적인 동양 사상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결국 일기(一氣)가 대순하는 가운데 음양합덕으로 신인이 조화되고 해원상생되어 도통진경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요약된 대순종지는 첫째 그 시간적 전개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쳐서 천하대순한다. 둘째 그 공간적 전개로서는 천계·지계·인계의 삼계(三界)에 걸쳐 천하대순한다. 셋째 그 조화적 전개로서는 기가 발동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단계를 거쳐 도통진경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가 난국에 처했을 때에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던지 등산을 할 때 길을 잊었을 때 공연히 여기저기 헤메이지 말고 본래 출발하였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처 세계화의 추세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화는 무엇보다도 전통의 튼튼한 기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화를 성공시키는 길은 바로 전통을 바릇 세우는데 있다. 세계화는 하나의 고층빌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단층집은 민족적 테두리 안에서만 사는 것과 같다. 단층집에도 기반이 튼튼하여야 하지만 고층빌딩에 이르러서는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층빌딩은 사상누각과 같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를 하고자하는 지금의 처지에서 무엇보다도

전통적 가치의 재확인이 필요한데 대순사상이 그 전통적 가치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기반만 다져가지고서는 고층빌딩이 서지 못한다. 대순사상이 다만 전통적 가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 전통적 특수성(傳統的 特殊性)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이 세계적 보편성(世界的 普遍性)을 띄울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세계화가 가능하다. 대순사상은 전통적 가치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이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조화적(造化的)으로나 세계와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뿐아니라 대순진리의 바탕이 되는 기(氣)사상은 오늘의 발달된 물리학(物理學)의 에너지 관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오늘의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궁극적 구성단위(窮極的 構成單位)를 원자(原子)로 보고 그 원자는 다시 양자(陽子) 전자(電子) 중성자(中性子)라는 입자(粒子)로 구성되었는데 그 입자는 고정된 존재라기보다 파동성(波動性)을 띠고 있으며 그 입자는 다시 쿼크(Quark)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쿼크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동양의 신비적(神秘的)인 기(氣)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F. 카푸라의 道自然學, 1975) 그렇다고 하면 대순진리가 주장하는 기(氣)사상은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따라서 가장 세계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인 동시에 음양합덕사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세기의 지표인 평화적 공존사상이요 신인조화로 물질과 정신이 합일되는 최고 물리학의 사상과도 일치되어 가장 보편적인 세계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순종지는 우리의 전통성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동시에 최신 과학이론과도 상치하지 않고 전세계적 보편성을 같이 지니고 있다. 너무 전통만을 고집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세계적 보편성만을 주장하여 전통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대순종지의 위대성을 바로 이 전통성과 세계성을 겸비하고 있는 데에 있다.

## IV. 맺는 말

우리는 오래지 않아 21세기를 맞이한다. 20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투쟁의 세기다. 그러므로 인류는 21세기는 투쟁을 정리하고 평화의 세기가 되기를 대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쟁위주의 서구의 철학인 대립위주의 변증법적 철학이 그대로 지속되는한 21세기에도 평화는 바라볼 수 없다.

오직 동양사상에서만 새로운 평화의 철학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 대순사상을 들수가 있다. 대순사상은 동양사상의 근본인 유기론(唯氣論)에 입각하여 태극(太極) 음양(陰陽) 삼재 즉 천지인(三才 卽 天地人)의 사상에 기초하여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고 만물이 상극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적으로 상생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며 이 무한한 공간과 시간속에서 일기(一氣)가 대순(大巡)하는 이 음양사상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지배적 사상인 서구사상을 극복할 길이 없다. 우주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면 정신이라는 양극적(兩極的) 대립적(對立的) 사상은 그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기 전의 우주의 궁극적 에너지인 기(氣)사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인간과 신이 분리되고 만물이 생존경쟁을 위하여서는 상극할수밖에 없는 투쟁사상은 신과 인간이 본래 하나라는 사상과 만물은 서로 상대방을 살리게 하므로써 자기 자신도 살 수 있다는 상생의 원리에 의하여서만 극복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생존경쟁에 있어서 투쟁만이 살길로 생각하였지만 이러한 투쟁사상이 바탕이 되어있는 생존이라는 것은 경쟁(競爭)이 아니라 공생(共生)이요 공존(共存)이요 협동(協同)이요 상생(相生)이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사고(思考)의 대전환(大轉換)만이 앞으로 인류도 살아남고 다른 생물도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요 새로운 철학이다. 이와같은 사고(思考)의 대전환(大轉換)이 바로 개벽(開闢)사상이다. 최수운과 강증산은 선천개벽(先天開闢)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상극(相剋)세상이어서 인류가 투쟁을 일삼았지만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이루어지면 투쟁위주의 상극의 원리 대신에 평화중심의 상생의 원리가 작용하여 비로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한 후천개벽의 원리를 대순진리회에

서 다시 구체화시켜 무자기(無自欺)로써 정신개벽(精神開闢)을 이루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므로써 세계개벽(世界開闢)을 이루어서 그러한 정신개벽과 세계개벽으로 인간개조(人間改造)가 이루어져 지상신선(地上神仙)을 실현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지상신선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대순진리회의 목적인데 이 지상신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하필 대순진리회의 목적이 될 뿐아니라 전인류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만 보고 그 분석으로 남는 개체(個體)의 대립성(對立性) 투쟁성(鬪爭性)을 강조하던 서구사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종합체의 일체성(一體性) 협동성(協同性)을 강조하는 동양 사상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앞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커다란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동양사상의 문명사적 의의가 있다. 그 동양 사상을 한층 심화시키는 동시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서 영원이 진리가 대순하여 동서양은 물론이요 전 우주적 차원에서 만물이 상생하게 되는 대순사상의 문명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대순사상을 요약한 대순종지의 문명사적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